

‘공업조선(工業朝鮮)’의 환상과 ‘학문 봉공(學問奉公)’의 현실: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탄생

정준영†

1. 들어가며

해방 이후 오랫동안 철저히 망각의 대상이 되어왔던 경성제대라는 존재는 최근 십여 년간 우리 학계에서 제법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의 근대 학술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시각에서 식민지 지성계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서 경성제대가 미친 영향들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종전까지의 모국과 식민지라는 이항 대립적인 틀로는 포착되지 않았던 식민지 제국 전역을 관통했던 지식-권력의 회로(回路)를, 경성제대라는 결절 지점을 통해 규명하려는 작업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는 중이다.¹ 이에 더해 경성제대의 존재 방식과 운영 형태에 대한 연구도 자료의 제약 속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경성제대가 우리 학계에서는 일본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felix11@snu.ac.kr

1 최근 식민지기의 학술과 지식을 다루는 논문들에서 경성제대는 상당히 친숙한 소재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배경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비중은 더욱 커지는데, 경성제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연구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다. 다만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세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인 그들만을 위한 학교라는 이유로, 또 일본의 학계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 받아왔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상황은 얼마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이처럼 경성제대가 새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성제대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중층적인 성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 같다. 경성제대는 총독부가 식민지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해서 구축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인 동시에, 식민 통치에 친화적인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기능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달리 보면, 이것은 근대 학문·과학의 엄밀성에 근간해서 식민지에 대한 과학적 ‘진리’를 생산하는 장치이자 이런 지식 생산의 최소 조건으로서 식민지 공간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치의 관행을 부분적으로 보장받은 비지(飛地, enclaved)적 장소이기도 했다. 1926년 학부가 설립된 이래, 20년 남짓의 기간을 통틀어 경성제대가 학원 안팎의 상충하는 대학상(像)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양상을 보여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²

그런데 경성제대에 관한 최근의 학문적 관심은 종전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후자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의 연구들이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친일 고등 교육에 대략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최근의 연구들은 (푸코적인 의미에서) ‘진실’ 생산의 장치로서 경성제대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런 측면이 경성제대 안팎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요컨대 경성제대를 일단은 ‘과학과 학문을 하는 곳’으로 보고 이러한 과학과 학문이 산출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식-권력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경성제대의 세 번째 학부였던 이공학부의 설립 과정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경성제대가 이공학부의 창설을 추진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전시 파시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 실현은 1941년 이른바 ‘신체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던 무렵에 이루어졌다. 이런 시대적 상황의 독특성에 대해서는 벌써 상당한 연구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과학과 학문’의 영역 혹은 지성사적 차원에 국한한다면, 다이쇼

²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여기에서는 경성제대가 설립, 전개, 변천 과정에서 상충하는 대학상(像)들이 충돌과 경합 속에서 얼마나 유동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시기와 쇼와 초기의 지성계를 상징했던 문화과학과 사회과학이 전향의 압력 속에서 퇴조하면서 자연과학의 기술적 이성이 새로운 ‘시대적 키워드’로 대두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성제대의 탄생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사태이다.³ 물론 경성제대 이공학부 설립이 표방했던 “자연과학의 이론적 지도자”와 “工科의 기술가”의 양성이란 구호는 이런 시대적 키워드를 추동했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었고, 솔직히 그 결과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⁴ 그럼에도 이공학부의 탄생이라는 사건은 “비(非)이데올로기적 보편의 신화”로서 과학이 이제 “사실(事實)로서 수리(受理)”되어야 할 시대적 필연이라는 인상을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데에는 충분했다.

이런 기대는 식민 당국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전쟁 중이라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공학부의 설립에는 식민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설립 단계에서 계획되었던 학부 구성은 1944년까지 1개의 강좌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대로 실현되었고, 4개 동(棟)에 걸친 공학관 건물도 500만 엔 가까운 거액을 들여 착공하였다.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에서도 새로 학부를 창설할 때 예산 등의 문제로 애초 계획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⁵ 전쟁 말기 물자의 총체적 부족 속에서도 “과학의 전당”을 위해 “조선총독부와 반도호텔에 이어 제3위의 큰 건물”을 지을 정도로 조선총독부의 지원은 파격적이었던 것이다.⁶ 하지만 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원의 이면에는, 이전까지 경성제대에서 학문 발전을 추동했던 최소한의 조건들이 식민 당국의 개입을 통해 파괴되는 과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식민지에 있으면서도 제국대학으로서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했던 여러 관행적인 장치들은 1937년 이후 본격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급기야 1939년 이른바 ‘성대정벌(城大征伐)’로 불렸던 인사권 개입에 의해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이공학부는 경성제대를 ‘제국대학’이게끔

3 정중현, “사실, 과학 그리고 문학의 신생: 신체제기 한국 대중소설에 나타난 ‘기술적’ 주체와 문학의 재편”, 『상허학보』 23집 (2008), 47-82쪽 중 48쪽; 차승기, “전신체제기 기술적 이성 비판”, 『상허학보』 23집 (2008), 13-46쪽 중 22쪽.

4 “城大를 綜合大學으로, 理工學部増設一新, 于先明春에 理科四十名増募”, 『동아일보』, 1937. 6. 8.

5 가령 1년 앞서 이공학부를 신설했던 나고야제대가 18개의 강좌를 개설하는 데 그쳤고, 같은 식민지의 제국대학인 대북제대는 1943년 당시 이학부(12개 강좌)와 공학부(18개 강좌)를 모두 합쳐도 이공학부 한 학부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다. 『名古屋帝國大學一覽』 昭和15年度 (1940) 및 『台北帝國大學一覽』 昭和18年度 (1943)을 참조.

6 “科學教育의 殿堂, 城大理工學部落成式”, 『매일신보』, 1942. 5. 3.

해주었던, ‘대학자치’라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제거된 ‘폐허’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탄생은 종전까지 학술적 담론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회주의적 지식 체계가 몰락하고 이 자리를 공학기술과 자연과학으로 대표되는 기술적 이성이 대체하는 시대적 배경과 확실하게 맞물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당시 대중 소설에서 형상화되곤 했던 과학기술의 비이데올로기성, 가치중립성 등과 거리가 멀었다. 이 글에서는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탄생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므로써, 경성제대 이공학부를 둘러싼 여러 ‘신화’들을 반추(反芻)해보는 계기를 가져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대해서는, 학부의 존속기간이 4년 밖에 되지 않으며 급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남겨진 자료가 많지 않다는 한계 때문에 연구의 제약이 없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근배의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자세하고 정통한 고찰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애초 연구의 목적이 조선인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사의 구축에 있었던 만큼 이공학부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분석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⁷ 식민지 조선의 공업 교육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이길로(李吉魯)도 식민지 고등 공업교육의 차원에서 이공학부 설립을 다룬 바 있지만 강좌 구성 및 교수진 등에 대한 분석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함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⁸ 이 글에서는 이공학부의 탄생이 식민지 제국 대학인 경성제대의 존재 방식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포착하고자 시도한다.

이공학부를 다룰 때 겪게 마련인 자료의 태생적 한계 문제는 이 글도 예외는 아니어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백은 불가피했다. 여기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들, 『경성일보』, 『동아일보』 등 당대의 신문, 『紺碧遙かに』, 『遙かなり佛岩山』 등 경성제대 출신들의 기록과 증언, 『경성제대학보』, 『경성제대일람』 등 학교 자료들을 활용하여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설립과 운용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고찰하겠다.

7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문화과지성사, 2005), 450-480쪽.

8 李吉魯, “植民地朝鮮の高等工業教育に關する一考察”, 『教育學雜誌』 40號 (2005), 15-32쪽.

2. 이공학부 설립과 경성제대의 ‘방향 전환’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탄생에 대해서는, 창립에 관여했던 경성제대 교수들의 증언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이를 이공학부 동문들이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한 연구들도 존재한다.⁹ 하지만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간 오류와 혼란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경성제대가 종전까지 논의되고 있던 이농학부 설립 논의를 뒤엎고 이공학부 설립을 급작스레 추진하게 되었는지, 또 이런 ‘방향 전환’이 식민지 제국 대학인 경성제대의 존재 방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은 제기하기 쉽지 않았다. 여기서는 우선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이공학부 탄생 경위를 가능한 한 재구성하는 한편, 경성제대의 방향 전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공학부 설립을 둘러싼 당시의 상황 속에서 검토를 시도한다.

1) 경위의 재구성: 경성제대 이공학부 설립 과정

이공학부의 창설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대략 1936년 말 경으로 추정된다. 1936년 11월 26일 『매일신보』는 경성제대에서 농학부 또는 공학부의 설립이 “긴급(緊急)한 형편(形便)”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공학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¹⁰ 농학부와 공학부, 어느 쪽이든 “학문(學問)의 계통(系統)”으로 보아 이학부의 설치가 불가피한데, 이학부가 졸업 후의 취직 문제가 곤란하며 농업 부문에는 고급 기술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공학부의 설치가 더욱 긴절(緊切)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경성제대의 세 번째 학부가 어느 것이 될지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였다.¹¹

대학 당국이 이공학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황은 1937년 4월 무렵부터 확인된다. 당시 경성제대 총장이었던 하야미(速水滉)는 1937년 3월 3주 간

9 京城帝大同窓會, 『紺碧遙かに』(1974)와 京城帝大理工學部同窓會, 『遙かに佛岩山』(1978)에는 창설에 직접 관여했던 교수들의 증언 및 회고가 남아 있어 유용하다. 이공학부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김근배, 앞의 책; 李吉魯, 앞의 논문 등이 분석한 바 있다.

10 “十年間 初等校 萬四百學級과 城大에 理工學部 新設”, 『每日申報』, 1936. 11. 26.

11 “學級增加와 增設”, 『每日申報』, 1937. 1. 21. 이 기사에는 “京城大學에 理農學部를 增設코저 各般에 資料를 蒐集中”이라고 해서 이공학부의 논의는 빠져있다.

에 걸쳐 오사카와 도쿄를 시찰한 후, 4월 선서식 훈사에서 시찰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¹²

저는 최근 理科・工科 방면의 대학 연구소 등을 시찰했습니다만, 그때 가장 강하게 느낀 바는 연구실이 거의 공장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책상 위에서 시험관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큰 기계를 움직이며 하루 종일 灰三物 바닥에 서 있어야 하며, 따라서 신체가 무척 강건하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¹³

즉, 경성제대 총장은 최소한 1937년 3월의 시점부터는 이공학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시찰을 시작했으며, 인문학자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전통적인 실험실이 아닌 ‘공장화된’ 실험실의 모습에 크게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 내의 최대 과학 연구 기관이었던 이화학연구소의 소장 오코우치(大河内正敏)를 만나 이공학부 창설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¹⁴ 창설 작업에 참여했던 경성제대 교수 오츠카(大塚明郎, 물리학 제1강좌, 2대 이공학부장)에 따르면, 하야미 총장은 만주 시찰 도중 오코우치와 만나 학부 창설의 인선을 부탁했고, 이에 오코우치는 그의 핵심 심복인 도쿄제대 공학부 교수 마지마(眞島正市, 조병학 제2강좌)를 하야미 총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이다.¹⁵ 오츠카는 신설되는 이공학부의 대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데 오코우치의 영향이 컸다고 보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는 그들이 언제 회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¹⁶ 다만 1937년 6월 8일자로 『동아일보』, 『경성일보』 등 조선 내의 신문들이 일제히 경성제대의 이공학부 증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초 분야인 자연과학과 응용 분야인 공학을 하나의 학부

12 『京城帝國大學學報』 121호 (1937. 4. 5).

13 “宣誓式訓辭”, 『京城帝國大學學報』 122호 (1937. 5. 5).

14 “理工學部の創設”, 『遙かに佛岩山』, 17쪽.

15 大塚明郎, “在鮮、そして同胞”, 『遙かに佛岩山』, 33-34쪽.

16 김근배, 앞의 책 (각주 7), 각주 23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1937년 하야미가 이공학부 신설의 필요를 인식한 후에 이를 상담하기 위해 오코우치를 만났다는 오츠카의 회고는 시기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 후술하듯이, 1937년 6월 말 이공학부 신설의 구체적 방안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하야미 총장이 1937년 11월 말까지 공무로 도쿄에 출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京城帝國大學學報』의 1937년도분[119호-130호]을 참조), 최소한 1937년 6월 이전에 하야미와 오코우치가 조선에서 만났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듯 보인다.

로 통합하여 1941년 개설할 예정이며, 예비 단계로서 1938년 4월 이공학부 진학의 이과(理科) 1학급 4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최소한 이 시점에서 이공학부 설립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세간에 알려진 것은 분명하다.¹⁷ 그리고 1937년 12월 말에는 대장성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공학부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¹⁸

1938년 4월에는 “경성제대관계”(칙령 제251호)가 개정되었다.¹⁹ 법문학부, 의학부와 더불어 이공학부가 경성제대를 구성하는 공식 학부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경성제대는 예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부를 증설하려면 거기에 3년 앞서 예과 생도를 모집해야 한다. 따라서 관계 개정의 뒤를 이어 “경성제대예과규정”(총독부령 제84호)도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과 을류(乙類) 1학급의 증설이 결정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원은 40명이었다. 총독부는 예과 수업을 담당할 교수 2명의 증원 및 이에 따른 예산의 증가를 허가했다. 이공학부의 신설은 이제 기정 사실이 되었다.

학부 신설에 관한 제반 법령이 확정되자 대학 당국도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창설 작업에 착수했다. 하야미 총장은 관계 개정 직후, 도쿄제대를 방문해서 오코우치에게 소개받은 마시마와 회견했다.²⁰ 마시마는 하야미에게 도쿄제대 이학부장 니와(丹羽重光, 기계학)와 이학부장 테라자키(寺澤寛一, 이론물리학)를 소개했는데, 이들은 경성제대 이공학부 창설의 책임자로 도쿄제대 교수 겸 히라즈카(平塚) 해군화약창 창장 아마가 신지(山家信次, 화약학)를 추천했다.²¹ 이공학부가 어떤 학과로 구성되며 강좌의 종류와 수는 어떻게 하는가의 계획도 대략 이 무렵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아일보』는 이공학부장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 시점에 신설될 이공학부는 7개의 학과, 40개의 강좌, 80명의 교원(교수 40, 조교수 40)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었다.²²

17 “城大를 綜合大學으로, 理工學部増設立一新, 于先明春에 理科四十名増募”, 『東亞日報』, 1937. 6. 8; “半島の最高學府に理工學部を増設-十六年度から綜合大學として面目を一新する城大”, 『京城日報』, 1937. 6. 8; “社説: 理工學部”, 『京城日報』, 1937. 6. 12; “城大に理工學部”, 『帝國大學新聞』, 1937. 6. 14.

18 “明年부터 教育施設改革 一億萬圓の 總經費로: 教育擴充計劃短縮 城大에 理工學部新設”, 『동아일보』, 1937. 12. 24.

19 「京城帝國大學官制中ヲ改正ム」(1938), 昭和13年04月12日, Ref. A02030032800(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20 『京城帝國大學學報』 134호 (1938. 5. 5).

21 “理工學部の創設”, 『遙かに佛岩山』, 17쪽.

경성제대 총장에게 초대 이학부장직 취임을 요청받은 야마가는 해군성의 양해를 얻어 1938년 5월 9일 창립 업무를 수락했다. 이공학부 창설 사무촉탁으로 공식 위촉된 그는 곧바로 근무지인 도쿄제대와 히라즈카, 두 군데에 이공학부 창설 사무실을 개소했다. 그리고 자신을 추천했던 도쿄제대의 니와, 테라자키, 마지마 교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교수 전형 작업에 착수했다.²³

그런데 공식적인 창설 위원회는 도쿄 사무실과는 별도로 1938년 5월 30일 조선에서 구성되었다. 첫 위원회에는 대학 총장, 법문학부장, 의학부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총독부 학무국장과 재무국장, 야마가 이공학부 내정자 및 앞서 언급한 도쿄제대의 세 교수가 참여했다. 이공학부 건축을 맡은 건축 기사 4명도 창설 위원이었다.²⁴ 하지만, 도쿄 사무실을 중심으로 이공학부의 대략적인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창설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맡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후술하겠지만, 공식적인 창설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1938년 9월 23일 단 한 차례 뿐이었다.²⁵

1938년 9월부터는 이공학부 부지 선정이 착수되어 1940년 1월 공덕리(孔德里) 일대 16만 평 부지가 선정되었다. 인근의 토지가 넓고 부근에 경춘 철도가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며 경성광산전문학교와 인접해 있어서 학교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용이하다는 측면이 고려되었다.²⁶ 대학의 설립 경비는 1938년 예산부터 5년 연속 사업으로 약 200만 엔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신축될 4동의 공학관 설립 경비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1940년도 예산으로 300만 엔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물자가 부족하여 공사는 때때로 중단되었는데, 일본 고주파공업회사로부터 50만 엔을 후원받는 등 시설 설비의 자금을 그러저럭 맞추어나갔다.

한편 이공학부의 교수진은 ‘외지(外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3기(期)에 걸쳐 체계적으로 충원되었는데, 개학 이전에 이미 대체의 인선을 완료한 후 경

22 “新設된 城大理工學部に 化學科等 七科設置 八十餘教授 四十講座 將且増置”, 『동아일보』, 1938. 4. 22.

23 『遙かなり佛岩山』, 17쪽. 大塚明郎의 증언에 따르면, 도쿄제대 이학부 교수 西川正治(물리학)도 초기 계획의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大塚明郎, 앞의 글 (각주 15), 34쪽.

24 『京城帝國大學學報』 135호 (1938. 6. 6).

25 『京城帝國大學學報』 139호 (1938. 10. 5).

26 『遙かなり佛岩山』, 18쪽. 1938년 시점에 야가마 촉탁에 의해 학부 부지로 墨洞驛 북쪽 일대(현재 노원구)로 선정되었으나, 1940년 1월 하야미 총장의 천거로 공덕리 일대로 부지가 바뀌었다.

성제대 예과 을류 생도들의 수료를 기다렸다. 최대 40강좌로 예정된 이공학부의 교수진 규모를 감안했을 때 40명 정원의 예과 수료자로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1938년 예과 증설 당시부터 거론되고 있었다. 대학 당국은 입학 전형을 통해 예과 수료자 이외에도 일본 내의 고등학교 졸업자, 공업전문학교 졸업자 중에 학력을 갖춘 자를 널리 전형하여 이공학부의 입학생 규모를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예과 수료자 37명만이 이공학부의 첫 입학생이 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물리학과 1명, 화학과 2명, 토목공학과 5명, 기계공학과 9명, 전기공학과 8명, 응용화학과 6명, 광산야금학과 6명으로 극단적으로 공과계열에 치우친 전공 선택 구조였다.²⁷ 아직 이공학부 건물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공학부는 1941년 4월 16일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공간을 빌려 수업을 시작했다. 이공학부 창설 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지 만 3년만의 일이다.

나아가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설립은, 경성제대가 설립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경성제대가 설립될 당시에도 창설 위원회의 설치(1923년 11월)에서 대학 설립의 확정(1924년 5월)까지 만년 정도가 걸렸을 뿐이고, 여기에 실제 학부가 개설되는 시기(1926년 5월)를 더해도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일본 본토 제국대학의 설립 사례와 비교해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짧은 기간에 식민지에 제국대학을 설립했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대학 설립이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었던 탓이 컸다. 1919년 3.1운동 이후 식민지의 조선인들은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든가, 직접 기성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식민 당국과 별도로 대학의 설립을 모색했다. 세브란스 의전의 종합대학 설립 시도와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²⁸ 식민 당국은 특히 외국인에 의해 “불완전한 사립대학”이 먼저 설립될 경우 식민 통치에 치명타가 될 것을 크게 우려했고, 사립대학보다 우월한 형식의 관립 대학 설립을 먼저 확정해서 식민지 사회 내부의 사립대학 설립 시도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최고 학부인 제국대학이란 형식으로 경성제대가 1924년 미리 설립을 공포했던 것은 이 때문으로, 식민 당국은 시기의 촉박함을 이유로 식민지 조선인들은 물론, 재조 일본인의 의견 수렴도 무시한 채 철저하게 관주도로 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설립 이후 경성제대가 조

27 『京城帝國大學學報』 170호 (1941. 5. 5).

28 경성제대 설립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준영, 앞의 논문 (각주 2), 4장을 참조.

선인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까지 ‘아마쿠다리[天降り]’대학, 즉 낙하산대학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것도 이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다.²⁹ 그런데 이공학부의 설립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공학부의 설립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식민지 사회의 의견은 재조 일본인까지를 포함해서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농학부에서 이공학부로: 방향 전환의 의미

게다가 1936년 11월 이전의 단계에서는 식민지 사회에서만 아니라 경성제대 내부에서도 이공학부의 설립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물론 학부 증설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경성제대의 설립이 추진될 당시부터 법문학부와 같은 “허학(虛學)”보다는 식민지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학문[實學]을 “외지의 자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때 논의의 중심은 공학이 아니라 농학이었다.

이런 농학부 설립 구상은 우가키(宇垣一成) 총독이 부임했던 193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른바 농촌 진흥 운동이 ‘국책(國策)’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을 강화하고 목화, 인삼 등 조선 특산 식물을 개량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경성제대에 농학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조였다.³⁰ 가령 1933년 9월 인삼 작황의 개량을 위해 촉탁으로 조선에 건너온 도쿄 제대 농학부 교수 미야케(三宅驥一)는 우가키 총독과의 대답에서 경성제대 농학부 설치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총독부가 농학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면, 자신은 이를 옹호하는 재조 일본인 사회와 호응하여 창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런 미야케의 의견에 대해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수원고농을 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는 15개 강좌 규모의 이농학부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응수했다.³¹ 하지만 쇼와 공황의 여파로 조선총독부를 포함한 제국 전체의 재정이 초긴축 상태로 돌입하게 되자, 경성제대의 경상예산 또한 1929년도 예산 대비

29 “なやむ路傍のひと”, 『帝國大學入學案内』(帝國大學新聞社, 1941), 147쪽.

30 “城大に農學部を、三宅驥一博士の進言に總督も大乗り氣”, 『京城日報』, 1933. 9. 14.

31 “腹案は理農學部-高農昇格は望み薄” 및 “機運は熟す-渡邊學務局長語る”, 『京城日報』, 1933. 9. 14.

70% 수준으로 삭감되는 등 크게 휘청거리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학부의 증설은 커녕 기존 학부를 운영하는 것조차 만만치 않았던 상황에서 결국 학부 증설의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³²

그런데 1936년 1월 법문학부 교수 출신의 심리학자 하야미(速水滉)가 경성제대 5대 총장에 임명되었다. 경성제대 창설 당시 초대 법문학부장을 역임하는 등 대학 사정에 정통했던 그는 총장이 되자마자 학부 증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총장 취임사에서 그는 당시 일본 제국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식민지 조선 또한 산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에 특수 사명을 가진 경성제대도 이러한 상황에 부응해서 대학의 실질(實質)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³³ 여기서 “상황에 부응”해서 “대학의 실질을 높”인다는 것은 학부 증설을 의미했는데, 하야미 총장이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농학부의 증설이었다. 취임 당시 경성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예산 관계로 곧바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농학부 설립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는 희망을 구체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³⁴ 그리고 1936년 6월 전선(全鮮) 대학·전문학교 교장 회의에서는 하야미 총장의 주도로 경성제대 농학부의 설립 필요성이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이 배석한 회의석상에서 논의되기도 했다.³⁵ 농촌 진흥 운동의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농과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당시의 식민당국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하야미 총장이 주도했던 경성제대 농학부 증설 논의는 이후 채 6개월도 지나기도 전에 이공학부 증설로 급격히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36년 11월에 전후해서 학부 증설 논의에서 이공학부의 가능성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1937년 1월의 시점까지도 여전히 이농학부 설립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³⁶ 여전히 상황

³² 1929년 2,126,168엔에 이르렀던 경성제대의 경상 경비는 1930년 2,004,529엔이 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1933년 최소 수준인 1,718,452엔까지 떨어진다. 교수 등의 인건비는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 긴축은 학교 운영 경비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졌다. 경성제대의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일본대장성, 『大藏省年報』 1924-1944년도를 참조.

³³ “就任挨拶”, 『京城帝國大學學報』 111호 (1936. 2. 4).

³⁴ “農學部創設ぜひ實現したい-西宮にて速水新總長談”, 『京城日報』, 1936. 1. 18.

³⁵ “農村指導者養成に農科大學を設立”, 『京城日報』, 1936. 6. 3.

³⁶ “學級増加와 増設”, 『毎日申報』, 1937. 1. 21.

은 불확실했던 것이다. 하지만 농학부 설립을 표방했던 하야미 총장은 1937년 3월 이후에는 명확히 이공학부 설립을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경성제대의 학부 증설 논의가 이처럼 농학부에서 공학부로 갑작스레 바뀌게 되었던 것일까?

물론 이런 갑작스런 선회의 배경은 여러 차원에서의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1930년대 중반 들어 일본의 대륙 침략이 더욱 본격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본토에서는 전쟁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진흥 및 동원,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체계적인 양성이 본격적인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사정이다.³⁷ 과학기술 동원을 위한 정책들과 이를 담당하는 제도 및 기구들이 속속 등장하는 한편,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인문, 사회, 법학 교육을 가급적 억제하고 공학부, 공업 전문학교의 증설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들이 점차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 동원의 양상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점차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³⁸ 식민지 조선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1930년대 들어 식민 당국은 조선 광물 자원의 가치에 주목해서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금광 등 광산 개발 붐으로 이어지자, 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식민지 사회 내부의 관심도 높아졌다.³⁹ 1935년을 전후해서 본격화되었던 공업학교 설립 운동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⁴⁰

하지만 이와 같은 갑작스런 ‘선회’의 직접적인 배후에는 역시 1936년 8월 총독의 교체, 즉 미나미(南次郎)의 총독 부임이 있었다. 취임 직후 미나미 총독은 전임 총독 우가키의 농공 병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 향상의 한계를 농촌 사회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던 전임 총독과는 달리, 미나미는 일본 본토의 고도 방위 국가 건설 구상을 식민지에 적용하면서 국책 공업의 진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을 옮겨갔다.⁴¹

37 1차 세계대전 이후 1930년대까지 일본에서 과학기술 신체제의 등장 과정에 대해서는 廣重徹, 『科學の社會史』(東京: 岩波書店, 2002), 4-5장 및 鈴木淳, 『科學技術政策』(東京: 山川出版社, 2010)을 참조.

38 1930년대 이후 제국 일본의 연구 개발 체제가 가진 상황 및 특징에 대해서는 澤井實, 『近代日本の研究開發体制』(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3) 및 鈴木淳, 앞의 책, 74-96쪽을 참조.

39 당시 식민지 사회에 왜곡된 형태로 불어 닥쳤던 이른바 금광 열풍과 그 세태에 대해서는 전봉관, 『황금광시대』(살림, 2005)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40 김근배, 앞의 책 (각주 7), 338-358쪽.

즉 우가키 총독이 농공 병진 정책 하에서도 “농본의 조선”을 강조했던 것에 반해, 미나미 총독은 “산업조선”, 특히 “공업조선”을 점차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경성제대 학부 증설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직후인 1936년 10월 21일 조선산업경제조사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조선 산업경제개발에 관한 일반 방침”이 확정되었는데 “산업교육에 관한 건”도 세부 토의 안건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토의 안건에는 “가급적 빨리 경성제국대학에 이, 농, 공 등에 상당하는 학부를 설치할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다.⁴² 당시는 미나미 총독이 막 부임한 직후로, 아직은 총독부의 기존 방침을 따르는 자세를 보일 무렵이다. 하지만 이 항목의 삽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나미는 이미 이 시점에서 전임 총독과는 차별화된 지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항목은 미나미 총독의 부임 직전까지만 해도 농학부 또는 이농학부 증설로 거의 굳혀져 갔던 총독부의 방침이 다시 “이(理), 농(農), 공(工)”으로 바뀌어 입장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부 증설 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가급적 빨리”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신(新)학부의 설립을 가급적 서두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은 고비용·저효율의 대학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우가키 총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⁴³

그리고 이러한 총독부의 입장 변화는, 앞서 보았듯이 이공학부의 즉시 설립이라는 형태로 곧바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설립 이유로는 “근시(近時) 조선의 발전”, “공업조선”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동원되었지만,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역시 조선총독부의 정책 변화였다. 1937년 이농학부가 이공학부로 변경되어 설립이 추진되었던 것은 물론 조선 광공업의 현재적 발전과 관련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실제 이공학부의 설립으로 실현되는 데에는 식민 당국의 정치적 고려가 결정적이었다. 이

41 우가키 총독과 미나미 총독의 농공 병진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는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동방학지』 120권 (2003), 75-123쪽을 참조할 것.

42 朝鮮總督府, 『朝鮮産業經濟調査會會議錄』(1936), 593-594쪽; “歴史的意義を示した朝鮮産業經濟調査會”, 『朝鮮』(1936. 11), 40쪽.

43 우가키 총독 재임 시절 식민지 교육 정책의 실상에 관련해서는 당시 학부국 관료들의 상세한 증언을 참조할 수 있다. “朝鮮植民地教育-教育實態と政策”,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14), 『東洋文化研究』 15号(2013), 173-362쪽.

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총독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과학 동원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확산 속에서 ‘전향’을 강요받았던 식민지의 지식인들도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이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대 정신’, ‘시대 정신’으로 과학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남천, 정비석 등의 소설가들은 구세대인 ‘고뇌하는’ 이념적 지식인의 퇴행과 과학자·엔지니어가 주역인 “명량한” 신세대의 약진을 대비하면서, 작금(昨今)의 시대는 바야흐로 ‘탈(脫)이데올로기’의 시대, 과학기술의 시대임을 드러내는 소설을 발표했다.⁴⁴ 새롭게 출범했던 경성제대 이공학부가 ‘과학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의 숨은 상징에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공학부의 설립 경위, 특히 학부 증설이 농학부에서 이공학부로 급격하게 선회했던 상황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데올로기로서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는 이처럼 오히려 철저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맥락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대학 창설 당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조선인, 재조일본인 사회는 물론, 대학 당국조차도 설립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그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3. 이식된 학부: 제도 이식의 양상과 이중적 성격

1) 교수진의 인적 구성과 도쿄제대 편향성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1941년 4월 11일 공식적으로 학부 수업을 시작했다.⁴⁵ 계획대로 7개 학과 체계였다. 이학 계열로는 물리학과와 화학과 2개의 학과, 공학 계열로는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 5개의 학과가 그것이다. 제국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실질적인 제도적 단위가 되는 강좌는 우선 1941년 1월 이공학부장 야마가의 열역학 강좌가 가장 먼저 확정되었고(칙령 934호), 4월에는 전 학과에 걸쳐 23개 강좌가 개설되었다(칙

44 정종현, 앞의 논문 (각주 3), 47-78쪽; 김철, “근대의 초극, 『낭비』 그리고 베네치아(Venetia)”, 『국민이라는 노예』 (삼인, 2005), 65-104쪽 참조.

45 “學事曆”, 『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16年度(1941). 이에 따르면 법문학부의 학사일정은 2학기로 구성된 데 반해, 의학과와 이공학부는 3학기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1학기는 4월 11일-6월 30일, 2학기는 9월 1일-12월 23일, 그리고 3학기는 이듬해 1월 1일-3월 31일이었다.

령 444호). 각 강좌에는 교수 1명과 조교수 1명이 배치되어 모두 48명의 이공학자들이 현해탄을 건너 조선에 부임했다(칙령 443호).⁴⁶ 이듬해인 1942년 4월에는 12개 강좌(칙령 400호), 12월에는 1개 강좌(칙령 823호)가 증설되었고, 이를 담당할 교원 26명도 같은 시기 충원되었다. 1943년 4월 응용화학 및 기계공학 분야 2개 강좌가 마지막으로 개설되어 7개 학과, 39개 강좌의 학부 구성이 완성되었다. 일부 강좌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으로 남았지만, 그럼에도 70명이 넘는 이공학자들이 식민지 조선에 부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학생의 규모와는 별도로 교수진으로는 경성제대 최대 학부의 출현이었다. 당시 법문학부의 교원은 60명 안팎, 의학부는 45명 안팎의 규모였기 때문이다. 초대 이공학부장이 된 야마가의 대학 내 위상은 상당했다. 하야미의 뒤를 이어 1940년 경성제대 총장이 된 시노다(篠田治策)가 7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기 때문에, 야마가는 부임 직후부터 시노다 총장을 대신하여 총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1944년에는 경성제대의 마지막 총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앞서 설명했지만, 이공학부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획을 관철시켜 경성제대 최대 학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도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이례적인 존재였다.

그렇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학부 구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부의 인적 구성에서 보이는 도쿄제대에 대한 극단적인 치우침이었다. 1945년 8월 ‘폐전’으로 경성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공학부의 강좌 주임을 맡은 교수는 모두 37명이었다.⁴⁷ 개설된 강좌는 모두 39개였지만, 측정과 계측을 다루는 <응용물리학 강좌>(41년 4월 개설)는 물리학 계열 강좌 교수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상하수도공학을 다루는 <토목공학 제5강좌>(42년 4월 개설)와 증기 기관을 다루

46 『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18年度(1943), 15-16쪽.

47 <토목공학 제2강좌>의 후세지마(伏島信九郎)는 이례적으로 강사 축탁의 신분으로 강좌 주임을 맡았다. 20년 이상을 조선총독부 철도국 기사로 활동했던 그는 1939년 이미 의원면직(依願免職)으로 총독부를 떠난 상태였다. 왜 후세지마가 총독부 직원(경성제대 교수)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축탁(강사)으로 남는 길을 택했는지는 현재의 사료 상황으로는 알기 어렵다. 한 자리라도 교수 정원을 더 확보하여, 일본 본토의 고급 기술 인력을 교수 자원으로 유치하는 데 써야했던 식민 당국의 사정을 양해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그는 강사라고는 해도 퇴임 당시 관등 3등의 고위 기술 관료였기 때문에 강좌 주임으로서의 위상은 경성제대의 교수들에 못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세지마도 교수는 아니지만 강좌 담임으로 이하의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는 <기계공학 제5강좌>(43년 4월 개설)는 주임 강좌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었던 강좌는 36개였다. 이공학부의 존속 기간은 4년 남짓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좌는 초대 강좌 교수의 시대에 폐전을 맞이했다. 다만 <야금학 제2강좌>는 예외였는데, 초대 주임교수 오야(大屋正吉)가 1942년 사망하고 도호쿠제대 조교수 다마루(田丸莞爾)가 2대 주임교수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이공학부 교수는 37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교수 중에서 도쿄제대 출신은 모두 34명으로, 비율로는 91.9%에 이른다. 도쿄제대 출신이 아니었던 교수는 규슈제대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20년 가까이 ‘만년’ 조교수 생활을 했던 시모자카(下坂實, 기계공학 제3강좌)와 무카이(向井參之充, 응용화학 제5강좌), 그리고 교토제대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10년간 연구와 강의를 해왔던 도야마(外山修, 분석화학 강좌), 세 사람 뿐이었다.⁴⁸

물론 일본의 제국대학에 새로운 학부가 신설될 당시에 기존의 제국대학 출신자, 그 중에서 도쿄제대 출신자가 교수진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니다.⁴⁹ 하지만 경성제대보다 앞서 공학부 혹은 이공학부를 설립했던 제국대학 중에서 이만큼 도쿄제대 출신이 압도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1940년 경성제대에 앞서 이공학부를 신설한 나고야제대의 경우, 이공학부 교수들 38명 중 21명이 도쿄제대 출신으로, 비율로는 55.3%에 불과했다. 1931년 출범한 오사카제대는 1933년 공학부를 신설했는데, 1947년까지 재직한 교수들 40명 중 도쿄제대 출신자는 16명으로 40% 수준이었다.⁵⁰ 도쿄제대 출신이 교수진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밖의 제국대학 이학·공학 출신자들도 전통이 오래된 학교 순의 비율로 신설 학부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이학부와 공학부가 설치된 제국대학의 관련 교수들을 모두 합산해 보아도, 도쿄제대 출신자는 69.8%—이학부 74.7%, 공학부 67.2%—에 머물렀다.⁵¹ 본교 출신 교수가 거의

48 이들이 학력 및 이력에 대해서는 논문 말미의 부록을 참조할 것.

49 일본의 제국대학 교수(식민지 제국대학은 제외)들의 학력 및 이전 이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 제대 교수들의 ‘아카데미 커리어(academic career)’가 가지는 독특한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로 岩田弘三, “帝大教授のアカデミック・キャリア”, 『教育社會學研究』 54集 (1984), 147-166쪽을 참조할 수 있다.

50 같은 논문, 150-151쪽.

51 1947년 제국대학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일본 본토 전체의 제국대학 이학부 교수는 모두 241명이었는데 그 중 도쿄제대 출신은 180명, 교토제대 출신은 31명, 도호쿠제대를 비롯한 기타 제대출신자는 26명이었다. 한편 공학부 교수는 441명이었는데 도쿄제대 출신은 296명, 교토제대 출신 80명, 규슈제대 35명, 도호쿠제대 22명이었다. 같은 논문, 150쪽.

100%인 도쿄제대를 포함해도, 30% 정도는 비(非) 도쿄제대 출신자들이 제대 교수진을 구성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다른 제국대학에 비해서도 유별나게 도쿄제대에 편중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편향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 이것은 이공학부 창설 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1938년 4월 “관제”의 개정으로 이공학부 설립을 공식 확정한 경성제대가 같은 해 5월 9일 실무 책임자로 야마가를 확정하고 이공학부 창설 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앞 절에서 설명했던 대로다. 5월 25일 야마가를 비롯하여 오코우치에게 소개받은 도쿄제대 교수 마지마, 도쿄제대 이학부장 테라자키, 공학부장 니와가 제일 먼저 창설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6월 20일에는 대학 내에는 법문학부장과 이학부장, 총독부 내에는 학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당연직 창설 위원으로 위촉되었다.⁵² 실무를 맡은 학무국 및 재무국 관료, 학무 건물의 건축을 담당할 기술 관료 2명도 추가되었다.⁵³ 그리고 1938년 9월 28일 경성제대 본관에서 이공학부창설위원회의 첫 타합회(打合會)가 개최되었다.⁵⁴ 그런데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진행된 이 타합회는, 이공학부창설위원회의 유일한 공식 활동이 되었다.⁵⁵ 야마가 이공학부장 내정자 및 창설 위원으로 촉탁 받은 도쿄제대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창설위원회에서 이공학 분야의 전문가는 전무했으며 심지어 조선 산업계의 요구를 대변하는 인사들도 배제되어 있었다. 이공학부 설립과 관련하여 최종 책임을 맡은 하야미 총장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인문학자인 이상 학부 구상의 세부적인 계획에 관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공학부의 강좌 구성 및 교수 인사를 결정하는 작업은 야마가 내정자의 도쿄 사무실이 사실상 전적으로 관할하는 구조였다. 도쿄에서 야마가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었던 도쿄제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학과 및 강좌 내용을 구성하고 교수 및 조교수 인선에 착수했다. 오코우치의 심복 마지마와 당시 도쿄제대 이학부장 테라자키, 공학부장 니와는 야마가가 주도한 창설 작업의 핵심적인 조력자들이었다. 이들은 하야미 총장과 오코우치 이화학연구소 소장 사이에서 결정된 대략적인 구상을 기반으로 학부 창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

52 『京城帝國大學學報』 135호 (1938. 6. 5).

53 『京城帝國大學學報』 136호 (1938. 7. 5).

54 『京城帝國大學學報』 139호 (1938. 10. 5).

55 김근배, 앞의 책 (각주 7), 461쪽.

용을 협의하여 확정했는데, 도쿄제대 이학부와 공학부를 철저히 벤치마킹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첫 작업이 이공학부에 개설될 예정인 7개의 학과에 맞추어 도쿄제대 이학부와 공학부의 유력 중견 교수를 창설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⁵⁶

1938년 6월 17일 6명의 도쿄제대 전현직 교수들이 창설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작업화학의 권위자였던 이학부의 시바타(柴田雄次)는 화학과를, 일본 근대 교량건축의 일인자이기도 했던 공학부의 다나카(田中豊)는 토목공학과를, 이화학연구소의 주임연구원이기도 했던 공학부의 니시(西健)는 전기공학과를 맡는 방식이었다. 인조 섬유 연구로 유명했던 공학부의 아즈기(厚木勝基)는 응용화학과를, 석탄 채굴 기술 연구로 유명했던 공학부의 사노(佐野秀之助)는 광산야금과 중에서 광산학 분야를, 공학부 명예교수인 가쓰라(桂辨三)가 야금학 분야를 담당했다. 그리고 물리학과와 기계공학과는 핵심 창설 위원인 테라자와 니와가 직접 관할했다.⁵⁷ 이들 도쿄제대 교수들은 자신들의 학과를 창조하여 해당 학과의 운영 방식과 교과 과정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교수진 구성에서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공학부의 각 학과를 담당하는 ‘주임’급 인물들을 추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성제대 교수직을 승낙한 이들은 다시 학과 담당의 창설 위원 및 야마가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나머지 교수·조교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들과 교섭하는 역할을 맡았던 모양이다.⁵⁸ 1938년 12월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하

56 동창회의 창설 경위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1938년 6월 17일 이공학부 창설의 사무를 위촉받았다고 나온다(『遙かに佛岩山』, 17쪽). 하지만 『경성제국대학학보』에 따르면 이들이 공식적으로 창설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1940년 3월 6일이었다(『京城帝國大學學報』 139호 [1940. 4. 5]). 단, 도쿄제대 명예교수 가쓰라는 1940년 12월 1일 창설 위원으로 위촉되었다(『京城帝國大學學報』 166호 [1941. 1. 5]). 1938년 12월 무렵에는 언론 보도에 이미 14명의 교수 인선이 마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고 하야미 총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城大理工學部, 十六년도에 개교할 준비진행. 速水總長歸城談”, 『매일신보』, 1938. 12. 14), 이들이 1938년부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일 것 같다. 1940년 무렵이 되면 이미 상당수의 교수 내정자들이 이공학부 창설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일본 본토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야마가를 도와 이공학부 창설의 세부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들이 곧바로 창설 위원으로 촉탁되지 않은 것은 당시 공식 창설위원회가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갑자기 증원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였지 않을까 추측된다.

57 『遙かに佛岩山』, 17-18쪽

58 모든 교수의 중원 방식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공학부 교수 출신들의 증언에서 부

야미 총장은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이공학부의 학부 구성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으며 이미 14명의 교수진의 인선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략 이 시점에 각 학과별로 2명 정도의 교수 또는 조교수 자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⁹ 이렇게 교수 또는 조교수 내정자로 확보된 인사들은 “이공학부 창설에 관련된 사무”의 촉탁으로 위촉되어 야마가 이공학부장 내정자를 도와 이공학부 창설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원래 소속된 연구 기관 혹은 대학에서 조선총독부의 촉탁이라는 자격으로 교수 활동을 준비했다.

가령 1939년 5월 경성제대는 물리학의 이누이(犬井鐵郎), 화학의 구보(久保昌三), 응용화학의 무라카미(村上惠一), 전기공학의 미야마(三山醇) 등 6명을 사무촉탁으로 위촉했다. 그리고 야마가가 이공학부장 내정자로 공식 부임한 1941년 1월에는 각 학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핵심 교수 예정자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4개월 남은 개학의 준비를 서둘렀다. 물리학의 오즈카(大塚明郎)와 야지마(矢島祐利), 화학의 이와세(岩瀬榮一), 토목공학의 아타카(安宅勝), 기계공학의 츠치야(土屋正義) 등이 그들로, 2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중진 연구자로서 실제로 이공학부 설립 이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⁶⁰ 이들은 응용화학의 무라카미, 전기공학의 미야마, 채광야금의 호리베(堀部富男)와 더불어 대학 내에 준비 사무소를 세우고 업무를 개시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공학부의 설립이 결정된 이후 구체적인 창립 작업은 조선에 공식적인 창설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야마가가 있는 도쿄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학과 내용 및 교육 과정의 구성, 교수진의 충원 과정에서 도쿄제대 이학부와 공학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했다. 식민지에 신설된 7개 학과에 대응해서 도쿄제대의 해당 학과 핵심 교수들이 관여하여 중요한 결정을 독점하였고, 이들의 제자들이 교수진 충원의 핵심적인 인적 자원이 되었다.

2) 학과·강좌 편성과 제도 이식의 역설

이러한 학부의 결정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기 어려웠음은 물론이다. 공식적인 창설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지만, 위원

본적이나마 대략의 패턴은 확인할 수 있다. 『遙かに佛岩山』을 참조.

59 “城大理工學部, 十六년도에 개교할 준비진행. 速水總長歸城談”, 『매일신보』, 1938. 12.

14 및 “二百萬圓으로 新春부터 着工. 城大理工學部 陣容整頓”, 『매일신보』, 1939. 1. 1.

60 『遙かに佛岩山』, 19쪽.

회 내부에 도쿄제대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이공학부의 내부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공학부의 설립에 이해관계를 가진 조선 산업계의 인사들도 배제된 상태였다. 다른 제국대학의 학부 창설과 비교해도 다소 특이한 구성이었다. 예컨대 경성제대보다 늦은 시점인 1943년 공학부를 설립했던 대북제대는 1940년 10월 공학부창설위원회를 창설했는데, 여기에는 대만전력 사장, 대만척식 사장 등 식민지 대만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유력 일본인 인사들뿐 아니라 기존의 대만 공업 정책 및 공업 교육을 대표해서 공업연구소의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⁶¹

물론 앞서도 언급했지만, 새로운 학부를 설립할 때 제국 내 ‘최고학부’인 도쿄제대를 참조하는 것 자체는 물론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교육과 연구의 전통,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 모든 면에서 도쿄제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기존 제국대학 이학부·공학부와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역 산업계의 유력 인사들 또는 공학 교육의 대표자들이 형식적이거나 창설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경우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공학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교수진 구성은 도쿄제대 이학부와 공학부를 철저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성은 철저하게 일본 본토의 관점에서만 고려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경성제대 이공학부 강좌교수들이 대부분 도쿄제대 출신자로 채워졌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이공학부의 특성은 경성제대의 다른 학부, 법문학부 및 의학부의 상황과 견주어도 남다른 측면이 있었다.⁶² 의학부의 초대 강좌교수들의 출신 학교를 살펴보면, 도쿄제대 출신자의 비율은 57.6%에 불과했다.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 의학부 교수진의 출신 학교 비율(도쿄제대 출신자 66.3%)과 비교해도 낮은 비율이었다.⁶³ 당시 일본 본토에서도 대학 교육 부문이 팽창하고 있어서 우수 교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초대 의학부장으로 의학부의 구성을 사실상 관할했던 시가(志賀潔)의 지향도 반영

61 丹羽重光·龜山直人, “工學部創設委員として”, 『台湾時報』 250號 (1940), 60-63쪽 중 63쪽.

62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의 교수진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준영, 앞의 논문 (각주 2), 137-149쪽을 참조.

63 岩田弘三, 앞 논문 (각주 49), 151쪽.

된 인선이었다. 도쿄제대 의학부의 학별과 대립했던 기타사토(北里紫三郎)의 핵심 제자였던 시기는 1920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부임했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수 인력을 적극 활용했다. 출신 학교보다는 식민지 의학의 현장 경험을 중시한 교수진 구성이었다. 초대 강좌교수 26명 중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출신이 12명, 46.2%를 차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편 법문학부의 경우에는 초대 강좌교수의 출신학교는 도쿄제대가 95%로 이공학부를 도리어 압도했다. 73명의 역대 강좌교수 중에서 도쿄제대 출신이 아닌 이는 3명에 불과했다(교토제대 출신 2명, 삿포로농학교→미국유학 출신 1명). 하지만 일본 제국 대학 중에서 법학부와 문학부가 있는 곳은 1922년과 1924년 도호쿠제대와 규슈제대에 각각 법문학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도쿄제대와 교토제대 뿐이어서, 애초부터 도쿄제대 편향성이 현저했던 분야였다. 그리고 수가 많지는 않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오랜 활동 경력을 가진 교수들이 법문학부 교수진 중에서도 중진을 이루고 있어서 실제 학부 운영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도쿄제대 출신이었지만 학문적 성향과 이해 관심은 오히려 조선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서, “재래종(在來種)”의 입장에서 도쿄제대 지향성이 강한 “수입조(輸入組)” 교수들과 대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⁶⁴ 이에 반해 이공학부의 교수진은 법문학부에 비해 도쿄제대 출신자의 비율은 낮았지만, 강좌교수들 중에서 교수 부임 이전에 식민지 경험을 가진 자가 토목공학 분야의 2명(그 중에서도 1명은 강좌 담임이었지만 강사 신분이었다.)뿐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쿄제대와의 편향성 자체는 법문학부 교수진에 비해 오히려 심했다. 이처럼 이공학부는 식민지 사회와의 소통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식된 학부라는 특성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이공학부의 학부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공학부의 학과·강좌 편성체계에 대해서는 창설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각 강좌의 상세한 내용은 1941년 이공학부가 개학될 당시 일본 정부에 강좌 증설을 요청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직 개설되지 않은 강좌까지 포함에서, 당시 경성제대 측이 구상했던 이공학부의 학부 구조는 대체로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⁶⁵

64 이것은 당시 언론의 표현이었다. 법문학부 교수들 중에 총독부 출신들이 ‘재래종’이라고 불렸던 반면,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 제국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조선에 건너온 인사들은 ‘수입조’라고 지칭되었다. 江間俊太郎, “京城大學論”, 『朝鮮及滿洲』(1932) 참조.

표 1.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강좌 내용

강좌		내용	강좌		내용
물리학	1강좌	실험물리	전기공학	1강좌	기초전기공학
	2강좌	역학		2강좌	전기기계도구
	3강좌	이론물리(전자기학)		3강좌	응용전기공학
	4강좌	이론물리(열역학)		4강좌	통신공학
	5강좌	실험물리(방사선)	응용화학	1강좌	무기화학공학
화학	1강좌	무기화학		2강좌	응용전기화학
	2강좌	유기화학		3강좌	섬유공학 및 유지공학
	3강좌	이론화학(분자운동)		4강좌	연료학
	4강좌	이론화학(화학열역학)		5강좌	화학공학
토목공학	1강좌	석공학(콘크리트)	광산학	1강좌	채광학
	2강좌	철도공학		2강좌	제련학
	3강좌	교량공학	야금학	1강좌	야금학(비철금속)
	4강좌	하천항만공학		2강좌	철야금학
	5강좌	상하수도공학		3강좌	금속조직, 합금학
기계공학	1강좌	기계역학	수학강좌		수학 1,2
	2강좌	기계공작	응용역학강좌		재료역학, 진동학
	3강좌	열역학	응용물리학강좌		측정학, 응용전자기학
	4강좌	내연기관	분석화학강좌		분석화학, 공업분석화학
	5강좌	증기기관	열공학강좌		응용열공학, 화약학
기술학강좌*		기술공학 생산공학 공장행정	광물지질학강좌		광물학, 지질학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49개의 강좌를 바탕으로 7개 학과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학부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제국대학 특유의 대학 조직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⁶⁶ 분과 학

65 「大正十五年勅令第四十七号京城帝國大學各學部ニ於ケル講座ノ種類及其ノ數ニ關スル件
中ヲ改正ス」(理工學部ヲ開講スル爲), 昭和16年 3月 19日-昭和16年 4月 4日, Ref. A1410
0939900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이 문서에는 각 강좌가 다루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문이 학과(academic department)로서 대학의 기본 조직 단위가 되는 현재 한국의 대학 구조와 달리, 당시 제국대학에서는 강좌가 대학 교수의 정원 및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 단위였다. 제국대학 특유의 제도로써 강좌제가 그것인데, 여기서 학과는 유사한 학문 계통의 강좌 몇 개를 묶은 것으로 규정되며, 동일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단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웠다. 실제 대학의 중요한 학사(學事) 결정은 학부 교수회의 단위에서,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은 강좌에 바탕을 둔 연구실 단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⁶⁷ 다만 각 전문 분야들 사이의 학문적 연관성과 체계성이 강한 이공계열 분과 학문의 특성상, 이학부와 공학부는 제국대학 내의 다른 학부들에 비해 학과제적 특성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된다. 따라서 강좌를 기본으로 하지만 동일한 명칭의 여러 개 강좌를 설치하여 이를 학과로 삼는, 강좌제와 학과제의 결합이 이공계열 학부에서 두드러졌다. 이것은 <표 1>에서 보듯이 경성제대 이공학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각 학과는 같은 이름이 붙여진 4-5개의 강좌로 이루어졌는데, 번호만 달리 하는 이들 강좌는 해당 학과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세부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였다. 다만 광산야금학과는 광산학 2개 강좌와 야금학 3개 강좌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제도적으로는 광산학과와 야금학과가 분리되고 있는 당시 제국대학 공학부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학과를 구성하는 강좌 이외에 6개의 개별 강좌들은 이른바 ‘공통학과’로 불렸다. 이들 강좌들은 기본적으로 각 학과의 전 교과정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공통 교과목들을 강의했는데, 학생들은 교수회에서 정한 각 학과의 필수 과목 이외에는 이들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었다.⁶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학과 및 강좌 운영 방식은 대체로 다른 제국대학 이학·공학부들과 동일했다. 심지어 토목, 기계, 전기, 응용화학, 광산야금으로 구성된 학과의 편성체제도 다른 제국대학 공학부들과

66 일본의 제국대학의 특징적인 제도 중 하나인 ‘강좌’제도에 대해서는 정준영, “해방 직후 대학사회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학과제 도입의 역사사회학적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67권 (2013), 41-87쪽 참조.

67 이런 의미에서 당시 문과계열의 학과들, 예컨대 법학과,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등은 오늘날과 같이 학문적 분과구조에 바탕을 둔 학과제(academic department)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했다.

68 “京城帝國大學理工學部規程”, 『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16年版(1941), 98-111쪽.

비교해서 대단히 ‘전형적인’ 형태였다. 이공학부가 설치한 학과들은 도쿄제대 공학부에서도 가장 먼저 학문적으로 제도화된 분야들로서, 그 연원은 도쿄제대의 전신인 공부성(工部省)의 공부대학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⁶⁹ 학과와 강좌의 편성만 본다면, 경성제대 이공학부에서는 ‘식민지적 특성’은 고사하고, 도쿄제대와 차별화된 후발 제국대학의 특성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다. 가령 나고야제대 이공학부는 전쟁 말기의 군사적 목적에 부응하여 항공학 및 금속공학을 특화시키는 등 도쿄제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애썼다.⁷⁰ 오사카제대 공학부는 <양조학(釀造學)강좌>, <정밀공학강좌>와 같이 도쿄제대 공학부에도 명칭이 없는 강좌를 편성하기도 했다.⁷¹ 이런 경향은 조선사 및 조선어 문학 강좌를 편성한 법문학부, 약초학과 기생충학 강좌를 편성한 의학부 등 경성제대의 다른 학부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경성제대 이공학부에는 식민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특색 있는’ 강좌를 개설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본 본토의 다른 제국대학 이공학부들처럼 도쿄제대의 영향력 하에서 부분적인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⁷²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99개 강좌를 갖춘 당시 도쿄제대 이학부·공학부 편제 중에서 가장 역사적 유래가 오래된 7개 학과의 강좌 내용을 압축적인 형태로 배치한, 사실상 도쿄제대 이공계열의 축소판이었던 것이다.⁷³

그런데 이런 철저한 이식적 성격은 도리어 식민지적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경성제대는 매우 짧은 기간에 학과 구성과 개별 강좌 내용을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가령 ‘기계공학’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계공학 제2강좌>는 기계공학법, 공작기계, 정밀기계학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기계공학법은 “기계공학법의 이론, 공작재료의 개설, 금속의 열처리, 주조, 용접, 판금공학의 공구측정 및 조성방법”을 다룬다는 것을 규정했을 정도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식견과 학과 교과 과정의 운영 ‘경험’이 없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계획이었다. 경성제대는 오히려 도쿄제대에 철저하게 의존함으로써,

69 大山達雄·前田正史 篇, 『東京大學第二工學部の光芒』(東京大學出版會, 2014), 7쪽.

70 名古屋大學史編纂委員會 篇, 『名古屋大學五十年史: 通史』(名古屋大學, 1989), 474-475쪽.

71 『大阪帝國大學一覽』昭和14年版(1939)을 참조.

72 후술하겠지만, 학부 계획 단계에는 기술학 강좌와 같이 도쿄제대에도 없는 특색 있는 강좌의 개설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 강좌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73 『東京帝國大學一覽』昭和14年版(1939)을 참조.

후발 학부라는 약점과 식민지 대학이라는 악조건을 넘어서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공학부의 의존 전략은 창설 단계에서 대단히 효과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경성제대는 상당히 수월하게 학부의 구체적인 계획뿐 아니라 교수진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교수진의 충원 문제는 당시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경성제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주지하듯이, 당시 제국 일본은 본토와 식민지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넘쳐났고, 이런 요구에 호응해 과학기술 관련 고등 교육기관 또한 확대일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각 제국대학의 이학부·공학부는 대대적으로 강좌를 확대하는 한편, 입학생의 규모도 크게 늘려나가고 있었다. 제국대학 공학부와 이학부의 학생 수는 1943년 현재 각각 5,744명과 1,419명으로 10년 전 대비 2.2배, 1.35배가 늘었고, 학과 증설과 강좌 확대도 현격하게 나타났다.⁷⁴ 학부의 신설도 줄을 이어서 1933년 오사카제대 이공학부, 1939년 나고야제대 이공학부와 규슈제대 이학부가 신설되었고, 경성제대 이공학부가 설립된 이후에도 1942년 나고야제대 이학부·공학부가 분리되었고, 도쿄제대 제2공학부가 설립되었다.⁷⁵ 단기간에 ‘기술자’를 육성할 수 있는 공업전문학교 부문의 신장은 이 시기에 더욱 두드러져서, 1939년 7개의 관립학교가 신설되는 한편, 1940년에는 기존 전문학교의 공업 전문학교 전환도 본격화되었다. 패전 당시 일본 본토에서 전문학교 수준의 공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81개에 이르렀으며 그해 입학자도 2만 5천명을 넘어섰다. 1937년 수치의 8배 이상이 었다.⁷⁶ 이렇게 이공계 고등 교육 부문이 팽창하게 되면, 이를 가르칠 고급 인력의 수요도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 인력이 제국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외지’(外地)의 교육 기관에 봉직할 결심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교수진 충원의 어려움은 1920년대 중반 경성제대가 법문학부를 개설했을 당시부터 직면해왔던 ‘유서 깊은’ 문제였다. 식민지에 오지 않으려는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조교수를 줄이는 대신 강좌 교수의 수를 늘려 식민지 부임을 유인하는 조치를 취했을 정도였다.⁷⁷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수월하게 교수진을 충원

74 澤井實, 『近代日本の研究開發体制』(각주 38), 116-119쪽.

75 澤井實, 『近代日本の研究開發体制』, 114쪽.

76 大山達雄·前田正史 篇, 『東京大學第二工學部の光芒』(각주 69), 24쪽.

77 速水滉, “半島文化と大學の使命”, 『京城日報』, 1927. 2. 28.

할 수 있었다. 이공학부가 철저하게 도쿄제대 이학부·공학부의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능했던 결과였다. 도쿄제대 중견 교수들이 각 학과의 편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얽힌 학벌 관계 속에서 교수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⁷⁸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식민지 조선의 산업계의 의견과 동향을 반영할 채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학과 및 강좌 편제, 교과 과정의 구성, 교수진의 편성에서는 ‘복제’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도쿄제대 이학부와 공학부를 참조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이식이 이공학부 창설을 실현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된 것도 명백했다. 이공학부가 도쿄제대의 철저한 이식이었기 때문에, 도쿄제대의 영향력 속에서 세밀한 교과 편제를 구축할 수 있었고, 비교적 ‘양질’의 연구 인력을 교수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라는 불리함을 오히려 철저한 중심에의 의존과 복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이었다.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창설 과정은 이런 점에서 오히려 식민성을 철저하게 배태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4. ‘학문 봉공’의 꿈과 현실: ‘총합연구기관’의 구상

그런데 애당초 이공학부 창설을 주도했던 이들이 처음부터 ‘최고학부’인 도쿄제대의 철저한 복제를 지향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양질의 교육 시설 및 교수진을 갖추어 “엔지니어의 전당(殿堂)”으로서 고급 기술자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공업조선’의 건설과 제국 일본의 ‘대륙 진출’에 공헌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국가 방위”의 중핵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 내의 공업적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적’ 연구 기관의 건설도 요청되고 있었다. 이들은 신설된 이공학부가 과학기술적 인재의 양성을 넘어서, “과학 및 공업기술에 관한 연구·실험을 행하는 바의 중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⁷⁹ 이것이 이공학부 창설을 주도했던 경성제대 총장 하야미와 초대

78 당시 교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이 경성제대 교수로 부임을 결정할 당시 자신의 지도 교수 및 추천 교수가 배석한 상태에서 야마가 이학부장 내정자와 만났다고 한다. 교수 전형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79 山家信次, “理工學部開學式に當りて挨拶”, 『遙かに佛岩山』(1941), 4쪽.

이공학부장 야마가의 공통된 지향이었다. 이공학부의 설립이 확정되었을 때 하야미 총장이 처음 자문을 구했던 것이 오키우치의 이화학연구소였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야미에서 야마가로 이어지는 이공학부의 ‘연구 지향’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었으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던 것일까?

‘관제’ 개정 직후인 1938년 5월, 창립 기념식 석상에서 총장 하야미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공학부 개설의 소식을 전했다.

생각건대 일본이 금후 대륙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우리 조선 반도는 갖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요즘 半島의 산업이 躍進的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오늘날, 한편으로 산업 기술자의 양성 기관으로서, 다른 한편은 諸種工業의 기초적 및 응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理工 학부에 과해지는 임무는 극히 중대한 것(입니다).⁸⁰

이공학부 창설이 확정된 시점에서 하야미가 신설될 학부는 산업 기술자의 양성 기관 이상으로 “공업의 기초적 및 응용적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음이 여기에서 확인된다. 이후에도 하야미는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공학부의 ‘연구 지향’ 혹은 ‘연구 본위’를 강조했다. 그런데 하야미가 이토록 ‘연구 지향’을 강조했던 것은 사실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야미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지 이공학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의 지향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이다. 1926년부터 경성제대 법문학부 교수로 재직했던 하야미는 동료인 철학자 아베(安倍能成), 미학자 우에노(上野直昭) 등과 더불어 다이쇼 교양주의자로서 저명했던 사람이었다. 1926년 경성제대가 설립되었을 당시, 하야미를 대신해 법문학부장 대리를 맡았던 아베는 식민지대학의 국策적(國策的) 사명이 강조되는 당시 분위기 속에서도 과감하게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⁸¹ 이대로 간다면, 신생의 대학은 “반도(半島)의 자제(子弟)를 기쁘게 하는데 대학이란 헛된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되고 말거나 “내지(内地)대학의 출장소(出張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그는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서 “대학(大學)의 본령(本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성제대는 어떤 대학

80 “創立記念式における速水總長の式辭”, 『京城帝國大學學報』 135호 (1938. 6. 5).

81 이하의 인용은 安倍能成, “京城帝國大學に奇する希望”, 『文教の朝鮮』 10號 (1924. 6), 17쪽에 근거한 것이다.

보다도 ‘연구 본위(研究本位)’의 대학이 되어야 하며, 연구야말로 “대학의 본령”이다. 이것이 대학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아베는 서양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며, 학문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연구 본위를 지켜내는 것이 경성제대의 존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은 하야미를 포함한 이들과 이소 교양주의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식민지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했던 조선총독부, ‘제국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던 대학 당국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경성제대가 근대 대학으로서의 ‘본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교양주의’의 입장에서 분과 학문들 사이의 알력과 권력 경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들은 경성제대의 법문학부가 비록 식민지적 상황의 불가피성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일본 제국대학 특유의 학문적 분과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무엇보다도 하야미 자신이 독일의 심리철학자 분트(Wilhelm Wundt)의 영향 아래에서 철학·윤리학에서 심리학의 영역으로 관심을 옮겨갔던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런 지향이 강했던 하야미 총장이 이공학부를 설립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이화학연구소를 떠올린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오코우치가 3대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화학연구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하야미 총장이 추구했던 연구 지향에 부합하는 지점이 많았다. 오코우치는 1916년 설립 이후 공전 상태에 있었던 이화학연구소를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로 당대에도 유명했다. 그의 개혁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학문 본위’의 구축과 학문적 분과성의 극복이었다. 오코우치는 당시 이화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물리학과 화학으로 나뉘어 대립했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물리학과 화학부로 구분되어 있던 연구소의 조직을 주임연구원의 연구실 체제로 해체시키는 조치가 그것이다. 그리고 각 연구실의 주임연구원은 학문 본위에 입각해서 인력의 배치와 재정의 운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개별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의도였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중 일부는 ‘특허’를 획득한 후 적극적으로 ‘공업화’를 시도하여 연구의 성과가 산업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자율적’ 연구의 재정적 기반이 된다는 모델이었다.⁸² 나아가 그는 우수한

⁸² 물론 이화학연구소의 역사에 대해서는 오동훈, “이화학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일본역사연구』 10권 (1999), 169-200쪽 및 齋藤憲, 『大河内正敏—科學・技術に生涯をかけた男』

연구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연구원의 대학 교수 겸직도 인정했는데, 그 결과 이화학연구소는 제국대학 이학·공학부 체제를 보완하는 ‘연구 후속 세대’의 양성 모델로도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⁸³

이런 오코우치의 이화학연구소 개혁은 하야미의 관심을 끌었음에 분명하다. 당시 하야미 총장은 경성제대 법문학부가 창설 당시 법학과 문학을 하나의 학부로 통합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오히려 신설될 이공학부가 이화학(理化學)의 기초 지식과 공과(工科)의 응용 지식을 결합시킴으로써 학술과 산업 두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⁸⁴ 이공학부의 설립이 애초 그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일단 설립하기로 한 이상 총장 자신의 대학 이상에 최대한 부합하는 모델에 입각하여 이공학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했다. 도쿄제대-제1고등학교라는 학연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학문 본위와 학문적 분과성의 극복이라는 개혁 취지에 있어서도 호응하는 바가 많았으며, 더군다나 당시로는 과학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코우치의 이화학연구소는 경성제대 이공학부가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지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야미 총장과 보조를 맞추어 이공학부의 탄생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야마가도 신생의 이공학부가 이화학연구소처럼 “종합 이공학 연구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하야미와 관점을 같이했다.⁸⁵ 하야미와 같은 인문학자처럼 연구 지향에 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야마가가 이공학부 창설을 계획할 당시부터 이공학부의 연구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은 당시 이공학부 교수들의 단편적인 회고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⁸⁶ 그리고 그는 1941년 이공학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공학부의 부장으로서 이공학부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인 형태로 개진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공학부가 출범한 직후 야마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日本經濟評論社, 2009)를 참조.

⁸³ 鈴木淳, 『科學技術政策』(각주 37), 46쪽.

⁸⁴ “創立記念式における速水總長の式辭”, 『京城帝國大學學報』, 135호 참조.

⁸⁵ 『遙かなり佛岩山』, 38쪽.

⁸⁶ “『理工學部をめぐる思い出』座談會”, 『遙かなり佛岩山』, 160-161쪽; 高田實, “理工學部設立の経緯”, 『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1974), 119-125쪽.

경성제대는 쇼와 26년 4월 초에 이공학부를 창설해서 반도의 과학 및 공업기술의 창조 발전과, 유용한 지도적 인재의 육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본 이공학부는 반도의 각종 공업 발전에 관련된 풍토 및 자원에 적응하여 반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을 공급하는 이화학적 연구와 더불어 그 응용으로서 공업적 연구 및 기술적 실험을 수행하는 중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반도의 工業力을 추진·조성하고 대륙 병참 기지로서의 공업적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협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⁸⁷

이공학부 설립 직후 야마가는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존재 의의를 “조선의 기술적 사명”과 관련하여 세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급 인력의 양성, 기초 과학의 진흥, 그리고 반도의 공업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종합적 연구 기관의 모색이 그것이었다. 야마가에 따르면, ‘고도 방위 국가체제’의 확립이 시급해진 조선은 제국 일본의 병참 기지로서 국책적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풍부한 조선의 산업 자원은 일본 중심의 동아(東亞) 블록 경제 체제 확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적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수행에 필요한 전력 증강의 직접적 자원으로서도 필수 불가결하다. 한편 조선의 공업적 잠재력과 위상은 30년대 중반 이후 ‘북선(北鮮)’의 산업적 개발과 더불어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데, 전선이 중국과 태평양 지역으로 급격히 확장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풍부한 전력 자원과 군수 산업 시설은 후방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었다.⁸⁸

하지만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 ‘조선 공업의 산업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야마가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우수한 고급 기술자의 공급은 여전히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보았다. 국가가 이들에게 거는 기대와 “반도(半島)의 특수성(特殊性)을 진실로 인식하고 올바른 지도 정신을 과약하는, 몸 바쳐 신동아 건설의 초석이 되려는 의기를 가진 순국적(殉國的) 사도(使徒)를 양성”하는 것이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일차적인 사명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⁸⁹ 실제로도 당시 식민지 조선의 산업기술 교육은 기존의 경성고 등공업학교와 수원고등농업학교에 더해서 1938년 평양의 사립 대동공업전문

87 山家信次, “朝鮮の技術的使命”, 『日立評論』 1942년3月號.

88 山家信次, “朝鮮産業科學研究院(假稱)の設置”, 『朝鮮』 313號 (1941), 42-43쪽.

89 山家信次, “理工學部開學式に當りて挨拶” (각주 79), 4쪽.

학교, 1939년 경성광산전문학교가 신설된 상태였지만, 당시 조선 산업계의 기술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조선 북부의 중공업 분야에 요청되는 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 기술자는 여전히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자들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⁹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공학부가 설립 계획 단계부터 도쿄제대의 학과·강좌 체제를 철저하게 이식하는 형태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교과 과정을 구축했던 것도 당시 조선에서 고급 기술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일본 제국대학 출신자, 그 중에서도 도쿄제대 출신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단기간에 “연성(鍊性)”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야마가가 보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공학부의 임무는 그저 고급 기술자의 양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과 만주에는 ‘전력 증강’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산업·전쟁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다. 이것이 조선의 공업적 잠재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원에 대해서 기초 과학의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동서(東西)의 학술문화를 섭렵(涉獵)하고 이를 순화(醇化)하여 연구에 있어서 입지성(立地性)과 통시성(適時性)에서 일탈(逸脫)하는 일 없이 국책(國策)에 부응하는 바에 따라 독창적(獨創的) 연구(研究)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⁹¹ 그런데 당시 식민지 조선에 설치된 연구 기관에는 이러한 기초과학의 진흥을 맡은 기관이 전무했다. “연구적 시험기관은 경성에는 중앙시험소, 지질조사소, 연료선풍연구소가 있지만 어느 것이든 그 주요 부분은 민간의 위탁에 의해 실험, 지도, 조사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래 공업은 점차 이론적 근거 위에서 발달할 것이며, 또 이학은 공업의 발전에 원리적 기초를 제공해, [공업을] 확고한 이론 위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또 다른 사명이 된다는 것이다.⁹²

가령 경성제대가 공학부가 아니라 이공학부를 설립한 이유도 야마가가 언급한 이러한 취지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학 교육에 자연과학의 기초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물리학·화학 등 이학 계통의 학과를 설립할 이유는 없다. 수학 등과 마찬가지로 공통 학과의 강좌를 설립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경성제대 이전에 나고야

90 澤井實, 『帝國日本の技術者たち』(吉川弘文館, 2015), 80-85쪽.

91 山家信次, “理工學部開學式に當りて挨拶”(각주 79), 4쪽.

92 山家信次, “朝鮮産業科學研究院(假稱)の設置”(각주 88), 44쪽.

대학도 이공학부를 설립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이학부와 공학부는 분리되고 말았다. 고급 기술자의 양성과는 차별화되는, 제국 일본 내의 이학 전공자의 필요성에 부응한다는 취지가 강조되었다.⁹³ 이학 전공자는커녕 고급 기술자의 공급도 부족했던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었다. 실제로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설립된 물리학과와 화학과의 입학 상황은 매우 저조했다. 당시 물리학과와 화학과는 모두 11개 강좌였고 따라서 강좌교수도 같은 수로 있었지만, 물리학과의 첫 입학생은 단 1명, 화학과는 2명에 불과했다.⁹⁴ 학교 운영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공학부의 이과계 학과의 존재는 연구 기관으로서 이공학부의 자기 규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실제로 물리학과와 화학과의 교수들은 공과계열의 교수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순수와 응용을 넘나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가령 화학과의 교수 이와세(岩瀬榮一)는 방사 화학이 전공으로 응용화학과 및 지질학과의 교수들과 더불어 방사성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⁹⁵ 조선의 산업 자원은 본격적인 이용에 앞서 먼저 자원적인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과학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지만, 이런 연구의 필요성 자체가 제국 일본의 국책적인 지향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원의 ‘국방적’ 활용이 전제되기 마련이다. 기초 연구와 국책 연구 사이를 진동하는 이와세, 토야마(外山修, 분석화학강좌 교수), 사이토(齋藤信房, 분석화학 조교수), 기노(木野崎吉郎, 광물지질강좌 교수)의 ‘조선 회원소 개발이용’ 연구반의 활동은 이공학부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야마가는 고급 기술자의 양성과 기초 과학의 진흥과는 별도로, 제국 일본에서 조선의 기술적 사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즉 생산력)의 개발과 확충을 넘어서, 이들 ‘생산력의 분배(分配)와 교통(交通)’을 일괄 통할하는 종합적인 중추 연구 기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장과 산업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 이에 대응하는 인구와 후생 시설의 배치와 관리, 그리고 이런 배치와 관리·운영에 편의성과 체계성을 부여하는 교통의 정비와 도시 계획도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 담당하는 ‘총합 연구 기관’의 설립도 구

93 名古屋大學史編纂委員會 篇, 앞의 책 (각주 70), 476쪽 참조.

94 『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16年版 (1941) 참조.

95 『遙かなり佛岩山』 94, 443쪽; 김근배, 앞의 책 (각주 7), 478-481쪽.

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총합연구기관은 기존 연구 시설 위에 군림 하면서 이들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관리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일개 학부로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야마가는 이공학부 설립 이후 식민지 조선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연구 기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이공학부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1941년 6월, 『조선(朝鮮)』의 지면을 이용한 가칭 “조선산업과학연구원”의 설치 제안과 1944년 1월 마찬가지로 『조선』에 투고한 재단법인 조선연구소에의 참여 촉구는 이런 맥락에서 의의를 가진다.⁹⁶

하지만 이공학부가 계획될 당시에는 이런 야마가의 구상이 학부의 편제에 일부 반영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기술학강좌>의 개설 계획이다. 이공학부가 전적으로 참조했던 도쿄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학강좌>는 결과적으로는 좌절되고 말았지만, 강좌 개설 계획 등을 통해 야마가가 이 강좌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는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경성제국대학이공학부장강좌내용”에 따르면, 기술학 강좌가 다루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⁹⁷

표 2. <기술학강좌>의 세부 내용

1. 기술공학 일반	공업의 의의, 실천기술공업, 공업기술사, 本邦공업의 발달, 천연자원론, 현대공업의 추세, 국가와 공업, 공업발전장려책과 발명공업화문제, 日滿支공업에 대한 조선의 위치
2. 생산공학	생산조직학, 공장在地, 공장건물, 공정관리, 재료관리, 도구관리, 설계 및 도면관리, 규격통일, 산업합리화, 제품조사
3. 공장행정	재무제도, 임금제도, 원가계산, 공장회계, 구매관리, 원가관리, 노무관리, 재해방지, 복리시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학강좌>는 크게 기술공학 일반, 생산공학, 공장행정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공학부의 다른 강좌들과는 달리 조선의 공업적 위치에 대한 자각에 입각해서 공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을 검토

96 山家信次, “戰力増強と朝鮮科學技術の使命”, 『朝鮮』 334號 (1944) 참조.

97 「大正十五年勅令第四十七号京城帝國大學各學部ニ於ケル講座ノ種類及其ノ數ニ關スル件 中ヲ改正ス」(理工學部ヲ開講スル爲), Ref. A14100939900(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昭和16年 3月 19日=昭和16年 4月 4日.

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동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강좌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학 강좌는 야마가의 총합 연구 기관이 지향했던 ‘생산력의 분배와 교통’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강좌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좌절되고는 말았지만, 야마가가 이공학부에 걸었던 기대와 구상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생산력의 교통’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이거나 이공학부의 실제 편성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천·항만을 담당하는 <토목공학 제4강좌>와 철도 공학을 담당하는 <토목공학 제3강좌>는 장기간 조선의 교통 시설을 담당한 기술 관료들을 강좌 담임으로 배치하여 식민지 행정 경험의 학술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제4강좌의 교수 요코이(横井増治)는 1913년 조선에 건너온 이래 조선 총독부 토목국 기사와 내무성 위생국 기사로 30년간 활동한 인물로 인천 항, 요코하마 항, 키요미즈 항 등의 개축, 복구 공사를 담당했으며, 북선(北鮮) 항만 건설 공사의 설계와 시행, 염전 축조와 같은 사업에도 관여했던 하천·항만 공사의 베테랑이었다. 제3강좌 강사 후세지마(伏島信九郎)는 1918년 조선에 건너 온 이래 20년간 철도망 계획과 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철도 건설 사무의 권위자”였다.

5. 마치며: 폐허 속의 대학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공학부는 ‘새로운’ 시대의 출현에 ‘방향 전환’이 시급했던 경성제대가 모색했던 돌파구였다. 한편으로는 고급 기술자의 부족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 지향이라는 근대 대학의 ‘본령’을 유지하면서도 과학 신체제 시대에 부응하는 중추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자리 잡으려는 시도였다. 특히 야마가는 이공학부 설립이 실현된 이후에도 이공학부가 이학과 공학, 기초와 응용의 분과적인 장벽을 넘어서 기초 과학의 진흥을 전담하며, 나아가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력의 분배와 교통’을 일괄 통할하는 종합적인 중추 연구 기관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점에서 야마가는 하야미가 지향했던 연구 지향을 이공학부를 통해 실제로 구현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산업 조선’, ‘연구 분위기’, ‘학문 붐공’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공학부의 설립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하야미에 의해 이공학부 설립 구상이 처음 모색되었던 시기와 야마가에 의해 이공학부가 실제로 실현되었던 시기 사이에는 중대한 단절이 존재했다. 같은 ‘연구 본위’와 ‘학문 봉공’이라는 키워드라도 그 의미와 맥락은 질적으로 달라졌던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야미가 표방했던 연구 본위와 학문 봉공은 근대 대학의 전통적인 이상을 반영한 개념이었다. 그에게 연구 본위라는 표현은 단순히 연구를 중시한다는 것을 넘어서 연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서도 검토했지만, 하야미의 동료였던 다이쇼 교양주의자 아베는 경성제대의 사명이 연구 본위, 학문 본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대학은 연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시세(時勢)의 요구에도 응하고 사회와도 접촉하고 또 세간(世間)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연구와 학문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연구의 본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⁹⁸ 하야미 또한 연구 본위의 이상과 관련해서는 아베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도 대학의 사명이 어디까지나 학문 연구에 있는 것이며 국가에의 봉공이란 이러한 학문의 추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⁹⁹

그가 이화학연구소 개혁에 주목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오코우치가 이화학연구소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연구 지상주의를 지향했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연구를 특정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어떠한 시도로 거부했던 오코우치는 오히려 연구자들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연구 풍토를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획득하고 이를 근거로 공업화를 추진했다. 이른바 ‘발명의

⁹⁸ 安倍能成, 앞의 글 (각주 81), 17쪽.

⁹⁹ 하지만 이들의 연구 본위 추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들은 학문의 추구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결여하고 있었다. 하야미가 말하는 학문 봉공은 보편적 학문 추구를 통한 국가, 사회 기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 학문 추구가 국가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답하지 못한다. 더욱이 이들은 교수 자치와 같은 학문적 자율성의 조건만을 중시했을 뿐,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것이 고민되지 않는 한 ‘보편적인 것’에 대한 강조는 식민 사회의 현실을 특수한 것으로 회피할 수 있는 구실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경성제대에서 ‘대학 자치’ 또는 학문적 자율성 주장은 자신들이 밭 딛고 있는 이중의 배태성(embeddedness)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경성제대의 대학 자치론이 안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정준영,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 『역사문제연구』 26호 (2011), 9-43쪽 참조.

공업화'를 통해 다음 연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산업의 확대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 본위, 연구 지상주의, 학문 봉공은 단순히 연구 자체를 중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이들이 보기에는 제국대학 등이 표방했던 대학 자치가 바로 이것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공학부의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었던 1938-1941년의 시점은 역설적으로 이 대학 자치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대학에 자유로움을 부여해주었던 관행적인 장치들은 중일전쟁 이후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직되는 가운데서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었고, '대학 자치'와 리버럴리즘을 표방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경성제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무국의 고등 교육 통제가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보장되었던 것들이 철회되기 시작했고 1939년 이른바 '성대정벌'로 불렸던 인사권 개입에 의해 대학 자치는 결정적으로 훼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임이 보장되었던 듯 보였던 하야미도 결국 총장직을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공학부가 개학한 1941년은 경성제대에서 대학 자치가 사실상 무너진 이후의 시기였다. 대학 자치가 부여했던 최소한의 긴장감이 제거된 대학 사회에서는 교육의 수단화, 연구의 수단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공학부의 연구와 교육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기술 도구적 차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전공에 따라 연구반으로 재조직되어 전쟁 동원에 필요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되었고, 학과 단위에서는 군대에서 파견된 전문 병력 요원들과 같이 군사적 과제를 연구를 하는 군연(軍研)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그나마도 일부 '국책적인' 연구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전황이 악화되고 물자 공급도 악화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실험 장비들을 갖추어 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확보된 예산이 있어도 총독부의 무관심과 관료주의적 행정 처리로 적절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¹⁰⁰ 학생들은 교육과 실습 대신 전공에 따라 군수 공장에 동원되어 작업을 해야 했고, 단축된 수업 연한으로 급하게 졸업하면 대부분 징병이나 징용의 형태로 군수 산업 기관에 배치되었다. 아마가가 표방했던 종합적 연구 기관

100 吉岡正三, “京城大學理工學部誕生のころ”, 『化學と工業』第6卷 第6号 (1949), 2-4쪽 중 4쪽.

의 구상은 현실에서는 과학기술 동원을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웠으며 그나마도 전지 경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공전(空轉)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투고: 2015년 3월 23일, 심사 및 게재 확정: 2015년 4월 14일)

부록 1. 경성제대 이공학부 강좌 교수표

강좌명	학과	강좌 실치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來鮮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물리학제1강좌	물리학과	41.4	大塚明朗	교수	1899	도쿄제대이학부물리학 과(22)	41.4	第八高等學校 교수(22-24) →明治專門學校 교수(25-40)	이공학부 강(44-45) 응용물리학강좌 분담(44-45)	(CHQ)과학조사→도쿄교육대 학교수, 대학 광학연구소장 일본과학교유학회 초대회장	
물리학제2강좌	물리학과	41.4	犬井鐵郎	교수	1905	第一高→ 도쿄제대 이학부물리학과(26)	41.4	도쿄제대 공학부 역학연구실 (寺崎교실) 조수(29-32) → 도쿄제대공학부 강사(32-41)	강좌담임(41-45)	도쿄제대 공학부교수(44-48)→ 도쿄대학 공학부교수	
물리학제3강좌	물리학과	42.4	矢島祐利	교수	1903	第一高→ 도쿄제대 이학부물리학과(26)	41.4	도쿄제대 이학부 강사(26-41) 경성제대이공학부 창설위원	응용물리학 강좌 겸임(41-42)	도쿄이과대학교수	
물리학제4강좌	물리학과	42.4	遠藤重郎	교수		도쿄제대 이학부물리학과(26)	43.4	横浜高等공업학교 조교수(30-33)→교수(34-43)	강좌담임(43-45)	도쿄제대 이학박사(48)	
물리학제5강좌	물리학과	42.4	山口大三郎	교수		도쿄제대 이학부물리학과(28)	41.4	大塚제대 이학부 조교수(35-41) →경성제대 이공학부 조교수(41) 도쿄제대 이학박사(38)	응용물리학 강좌 겸임(42-43)	千葉대학 문리학부 교수	
화학제1강좌	화학과	42.4	岩瀬榮一	교수	1903	도쿄제대 이학부화학과(26)	41.4	大塚공업시험소 기수(26-29) →이화학연구소 연구원(29-41) 경성제대이공학부 창설위원	강좌담임(41-45)	東京電氣대학 교수 東京電氣대학 학장	

강좌명	학과	강좌 실지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來鮮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화학제2강좌	화학과	42.4	西川武一	교수		도쿄제대 이학부 화학과(21)	41.4	여순공과대학 예과 조교수(21-25)→교수(25-41) 도쿄제대 박사(41)	강좌담임(41-45)	九州대학 교양학부 교수 福岡여자단기대학 교수	
화학제3강좌	화학과	42.4	久保昌二	교수		도쿄제대 이학부 화학과(33)	41.4	도쿄제대 이학부 강사(35) 이화학연구소 연구원	강좌담임(41-45)	名古屋대학 이학부 교수	
화학제4강좌	화학과	42.4	伊勢村壽三	교수	1908	도쿄제대 이학부 화학과(30)	41.4	高知高等學校 교수(30-41)	강좌담임(41-45)	大阪대학 교수 近畿대학 교수	
토목공학제1강좌	토목공학과	41.4	安宅勝	교수	1903	第一高→ 도쿄제대 공학부 토목공학부(26)	41.4	東京市 기사(26-30)→ 도쿄시 기사(31-41), 육군소위 경성제대 이공학부 창설위원	강좌담임(41-45)	大阪대학 교수	
토목공학제2강좌	토목공학과	41.4	伏島信九郎	강사	1890	도쿄제대 공학부 토목공학과(18)	188	총독부 철도국 기사(18-24) →총독부 철도국 기사(25-39) 의원번직(39)	* 강사촉탁의 신분 으로 강좌를 담당. 강좌담임(41-45)	조선총독부 철도사 부의 권위자	
토목공학제3강좌	토목공학과	41.4	新郷高一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 토목공학과(25)	41.4	北海道제대 조교수(25-38), 도쿄제대 공학박사(39) →北海道제대 공학부 교수(응용역 학제3강좌담임, 39-41)	강좌담임(41-45)	방위대학교 교수	

강좌명	학과	강좌 실지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학齡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토목공학제4강좌	토목공학과	42.4	橫井晴治 ヨコヰハルジ	교수	1888	도쿄제대 공학부토목공학과(13)	13.7	총독부 토목국 기사(13-15) →총독부 토목국 기사(15-44), 강성제대 교수겸 원(42-44) →경성제대 교수 전임(44-45)	경임교수(42-43) 전임교수(44-45) 강좌담임(41-45)	中央대학 교수 中央대학 공학부장	조선총독부 함남권 설의 권위자 北鮮함남권실공사 의 설계공사 주도
토목공학제5강좌	토목공학과	42.4	(公席)								-강좌는 개설되었 지만, 강좌담임 교 수는 없었음.
기계공학제1강좌	기계공학과	41.4	淺野友一 アサノユウイチ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기계공학과(23)	42.7	여순공과대학 강사(29)→ 조교수(30-34) →여순공과대학 교수(34-45), 경성제대 교수 겸임(42-45)	기계공학1강좌 담임(42-45) 응용역학강좌 겸담(45)	群馬대학 공학부 교수	
기계공학제2강좌	기계공학과	42.4	土屋正義 ツクリヤヨシノリ	조교수		도쿄제대 공학부기계공학과	33.4	강성제국대학 예과 교수(33-43)	조교수(41-42) 교수승진(42) 강좌분담(42-43) 강좌담임(43-45)	熊本대학 공학부 교수	
기계공학제3강좌	기계공학과	42.4	下坂實 カサノタカノリ	교수		구주제대 공학부기계공학부(25)	41.4	北海道제대 공학부 강사(26)→ 조교수(27-40)	기계공학제1강좌 담임(41-42) 기계공학제2강좌 담임(42-45)	東京도립공업전문학교 교수 (46-48)→東京도립대학 교 수(49-70) 정년퇴임 → 東 京도립공업고등전문학교 교 장(70-78)	

강좌명	학과	강좌 실지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출생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기계공학제1강좌	기계공학과	41.4	本田三雄	교수		도쿄제대공 학부기계공학과(25)	41.4	육군 화학연구소 기사(28-40)	강좌담임(41-45)	방위대학교 교수	
기계공학제2강좌	기계공학과	43.4	(公席)								~강좌는 개설되었 지만 강좌담임 교 수는 없었음.
전기공학제1강좌	전기공학과	41.4	安宅彦二郎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전기공학과(27)	41.4	明治專門學校 교수(27-41)	강좌담임(41-45)	筑波대학 공학부 교수	
전기공학제2강좌	전기공학과	41.4	中島好忠	교수		도쿄제대공학부전기공 학과(32)	41.4	도쿄제대 공학부 助手(32-35) →岩城글라스제조소기사(36-40) 경성제대 이공학부 창립의원(40)	강좌담임(41-45)	東京대학 공학부 교수 橫濱國立대학 공학부 교수	
전기공학제3강좌	전기공학과	41.4	高田實	교수		도쿄제대공학부전기공 학과(19)	40.12	東京市 전기연구소 기사(23-39) →경성제대 예과교수(40-41)	강좌담임(41-45)	山形대학 공학부 교수	
전기공학제4강좌	전기공학과	42.4	谷忠篤	교수		도쿄제대공학부전기공 학과	43.7	전기시험소 기사	강좌담임(43-44) 41.10 의원면직		~引揚이후 인 안됨
응용화학제1강좌	응용화학과	43.4	村上惠一	조교수		도쿄제대공학부응용화 학과(33)	41.4	경성제대 조교수(41-43) 총독부 중앙시험소 기사(41-45) 경성제대 교수 승진(43)	강좌분임(43) 강좌담임(43-45)	東北대학 공학부 교수 (45-71)	

강좌명	학과	강좌 실지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출생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응용화학제2강좌	응용화학과	42.4	藤岡忠仁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응용화학과(19)	42.4	도쿄공업시험소, 도쿄의생시험소 기사(29-41) 경성제대 이공학부 장전위원	응용화학제4강좌 담임(41-42) 강좌담임(42-45)	慶應義塾대학 공학부 교수 (46-49) 제직 중 사망.	
응용화학제3강좌	응용화학과	42.4	高橋武雄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응용화학과(26)	42.4	(주)일본제철製鐵(35-28) 東京공업시험소 기사(28-42)	강좌담임(42-45)	도쿄대학 교수(46-) 名古屋대학 교수 明治대학 교수	
응용화학제4강좌	응용화학과	41.4	石橋弘毅	교수	1899	도쿄제대 공학부응용화학과(23)	41.4	상공성 연료과 기사 만철 撫順탄광연구소 연구원 도쿄제대 공학박사(40)	분석화학강좌 담임(41-42) 강좌담임(42-45)	東洋대학 공학부 교수	
응용화학제5강좌	응용화학과	41.4	向井參之充	교수	1898	九州제대 공학부응용화학과(22)	41.4	九州제대 공학부 조교수(22-44)	강좌담임(41-45)	熊本대학 공학부 교수	
광산학제1강좌	광산 및 야금학과	41.4	道家欽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광산학과(23)	41.4	北海道제대 조교수(23-41) 제외연구(32-33)	강좌담임(41-45)	北海道대학 교수(46-57)	
광산학제2강좌	광산 및 야금학과	42.4	水田惟一	교수	1901	도쿄제대 공학부광산학과(26)	42.1	여순공과대학 교수	강좌담임(42-45) 광물지질학과강좌 겸임(42)	도쿄대학 공학부 교수	

강좌명	학과	강좌 실지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來鮮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아문학제1강좌	광산 및 아문학과	42.4	吉岡正三	조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아문학과(33)	42.4	강성제대 조교수(41-43), 교수	강좌담임(42-43) 강좌담임(43-45)	大阪府립대학 공학부 교수	
			大屋正吉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아문학과(22)	39.4	공업시험소기사(26-29)→明治專 門學校교수(29-30), 공학박사(30) →강성광산공전 교수(39-41)	강좌담임(41-42) 제직 중 사망		
아문학제2강좌	광산 및 아문학과	41.4	田丸莞爾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아문학과(14)	43.9	東北제대 조교수(28-43) 공학박사(31)	강좌담임(43-45) 총독부기사(43-5) 광공국언료선철연 구소장(44-5)	大阪府립대학 교수	
			原田蕃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아문학과(19)	43.7	明治專門學校교수	강좌담임(43-45)	青葉ヶ丘여자고등학교 교장	
수학강좌	공통이수	41.4	宇野利雄	교수	1902	도쿄제대 이학부수학과(27)	41.3	東京고등상선학교 교수	강좌담임(41-45)	東京도립대학 교수(49-58) 日本대학 교수	
응용역학강좌	공통이수	41.4	清水篤磨	교수		도쿄제대 공학부기계공학과(24)	41.4	廣島고등공업학교 교수	강좌담임(41-43) 제직 중 사망 (43.11)		-清水사망 후, 淺 野友一(기계공1)이 계임.

강좌명	학과	강좌 실지	성명	취임 직위	생년	학력	출생年	이전 경력	제직 중 이력	제직 후 이력	비고
(分館) 물리학과의 강좌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 41.4-42.4 矢島祐輔(물리3)→ 42.4- 43.8 山口大二郎(물리5)→ 43.8-44.5, 45.7-8 大塚明郎(물리1)											
응용물리학강좌	공통이수	41.4				경도제대 이학부화학과(32)	42.4	京都제대 대학원(32-38) 京都제대 강사(38-42) 이학박사(41)	강좌담임(42-45)	大阪대학 강사(47) 大阪공업전문학교 교수(48) 大阪부립대학 교수(49-64) 大阪극립대학 학장	
분석화학강좌	공통이수	41.4	外山修	교수							
열공학강좌	공통이수	41.4	山家信次	교수	1887	도쿄제대 공과대학화학과(11)	41.1	東京제대 조교수(19-22) 도쿄제대 교수(22-41) 해군조병장 소장(33-37) 해군조병 중장예원(37)	이공학부장 (41-44) 강성제대총장 (44-45) 강좌담임(41-44)		-총장 제임 중에는 須藤吉之助교수가 강좌를 분담 (45.3-45.8)
광물지질학강좌	공통이수	41.4	大野崎吉郎	교수	1899	도쿄제대 이학부지질학과(24)	26.11	東京제대 助邦(24-26) 조선총독부 기사, 직산국 지결연 구소 근무(26-45) 강성제대교수 겸임(44-45)	강좌담임(44-45)	北海道대학 강사(45-48) 廣島대학 교수(49-63) 정년퇴임.	-水田雅一이 강좌 담임(42.1-42.4). 신 설된 광산강좌로 옮김.

* 출처: 『京城帝國大學一覽』(1943); 『京城帝國大學學報』(1937-1945); 『理工學部を覗く』, 『京城日報』, 1941. 4. 23-29; 『朝鮮總督府官報』(1937-1945); 1925-1945년 대상자의 경력과 관련된 제국대학·대학·전문학교의 일람(一覽)(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http://dl.ndl.go.jp/>); 京城帝大등장회 소식지 『細碧』, (1951-1988); 경력 중 해당 대학의 年史物 등을 기반으로 작성함.

The Emergence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Between Myth and Reality of 'Industrial Chosen' since the late 1930s

JUNG Joon 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and reveal meanings of the establishment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KIUFSE) and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colonial Korea through analyzing the myth and reality of 'Industrial Chosen,' which was the motto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ince the late 1930s.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empire made a campaign of the 'New Organization' which focus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high military state. For fitting into this 'New Er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ent on to emphasize Chosen's value and status of colonial/imperial system as a whole.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ial potential in Korea were stressed and their role as a supply base for the "Great Asia War" came to the forefront.

Together with radical changes in the colonial/imperial system as a whole, this period provided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KIU). As a colonial university, it needed to supply engineers with university training for meeting the growing demand of related industries in colonial Korea. But at the same time, it was necessary that KIU had to keep its status as a research-oriented modern university, through establishing a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functions of university for colonial rule and the universal vision of a modern university were inherently conflicting. KIUFSE, established in 1941, was a result of these conflicts. Furthermor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KIUFSE were reflected in the outcome of such conflicts. Many controversial element coexisted in the university structure and exacerbated the disrpture of the university.

Keywords. Keijo Imperial University(KIU), Keijo Imperial University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KIUFSE), 'Industrial Chosen'